

훈춘통상구, 공안 입경관광 종합봉사창구 정식 가동

—7월 1일 첫 로씨야 자가용관광팀 맞이



7월 1일 입경한 16명 로씨야 자가용관광팀 관광객들이 통상구 사업일군들과 함께 훈춘통상구에서 기념사진을 남겼다.

7월 1일 오전, 길림성 첫 공안업무와 사회화 봉사 ‘원스톱’ 통상구 입경관광 종합봉사창구가 훈춘에서 정식으로 운행에 들어갔다. 창구는 첫 입경 외국인관광객으로 16명의 로씨야 자가용관광팀을 맞이했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훈춘통상구 공안 입경관광 종합봉사창구가 정식으로 가동된 후 입경 관광객은 통상구 사증 발급 신청으로부터 름시운전허가, 차량 름시번호판, 차량보험 등

일련의 업무를 처리하기까지 15분이면 된다. 길림성공안청은 년초부터 길림출입경변방검사총소, 중국은련길림지사, 중국이동길림지사와 연합하여 공안출입경, 교통관리, 변방검사와 사회화 봉사를 고효율적으로 통합하여 통상구 사증, 름시운전허가, 경의 차량 름시번호판, 름시운행증, 이동통신, 이동지불 등 여러가지 공안업무와 사회화 봉사를 ‘한 창구에서

접수하고 원스톱으로 전부 처리’함으로써 입경 관광객의 통관 체험과 통상구 봉사의 종합 효능을 효과적으로 제고시켰다. 이 업무의 시범으로 연변주공안국은 름시운전허가, 경의 차량 름시번호판 등 업무를 통상구 비자부문에 이전하고 원래의 훈춘통상구 비자 창구를 통상구 입경관광 종합봉사창구로 승격시켜 입경하는 외국인관광객들이 통상구 비자를 신청하는 동시에 름시운전허

가, 경의 차량 름시번호판, 름시운행증 등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관광, 단체관광, 자가용관광 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연변원동국제관광유한회사 총경리 오위는 “예전에 외국관광팀이 길림성에 관광을 오면 비자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을 바꾸고 전화카드를 사는 등 여러 곳을 찾아다녀야 했는데 지금은 한창구에서 전부 해결되어 정말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훈춘통상구 종합봉사창구는 ‘온·오프라인’ 련동 봉사도 실현했다. 입경 외국인 관광객은 려행사를 통해 길림의 ‘인터넷 + 공안’ 종합봉사 플랫폼에서 통상구 비자 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데 통상구에 도착하면 직접 비자를 수령하여 입경할 수 있는바 ‘인터넷 신청, 통상구 수령’은 외국인 관광객이 입경하여 길림성에 오는 새로운 정상상태가 되고 있다.

현재 길림성공안청은 길림의 ‘인터넷 + 공안’ 종합봉사 플랫폼의 통상구 입경 빈번 사항인 ‘원스톱 처리’를 서둘러 추진하여 입경 외국인 관광객의 체험감과 만족도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있다. 길림성공안청은 다음 단계에 훈춘통상구 종합봉사창구의 경험을 총화하여 점차 장춘통국가국제공항, 연길조양천공항 등 공항통상구에 종합봉사창구 모식을 보급함으로써 길림성 문화관광산업의 고속 발전에 더욱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하게 된다.

/ 유경봉기자



중국제 1 자동차 화룡시 교육 인재 사업 발전에 노력



중국제 1 자동차그룹이 화룡시의 고종졸업생들을 ‘제 1 자동차그룹에 진입’ 사회실현 행사에 초대했다.

향촌 진흥은 인재에 의존해야 하고 인재 양성은 교육에 의존해야 한다. 최근, 중국제 1 자동차그룹에 따르면 이 그룹은 최근 몇년 동안 화룡시를 도와 교육 기반시설 투입, 향촌 진흥 인재 양성, 교사대교 강습 등 면에서 지속적인 기여를 해왔다.

교육의 토대를 다지는 데 노력

중국제 1 자동차는 화룡시의 교육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배치, 인재 양성 등 난점과 막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왔다.

교육 지원 자금 315 만원을 략착했는데 그중 120 만원을 송하평소학교 교수시설 개조 프로젝트에 투입하여 교수시설을 보완했다. 65 만원을 교육국 눈 보호 등 구내 사업에 투입하여 전 시 19 개 고종과 초종에 LED 눈 보호 교실 등과 흑판 등을 설치했다. 중소학교 심리지도실 설비 구매에 61 만원을 투입하여 학생들의 심리건강을 보호해주었다. 지혜형 청소년활동센터 구축에 29 만원을 투입하여 청소년활동센터의 교육정보화 수준을 효과적으로 제고시켰다. ‘홍기꿈 자강반’ 프로젝트에 150 만원을 투입하여 빈곤가정 고종생을 연인수로 300 명 지원함으로써 빈곤가정 대학생들의 대학꿈을 이루어주었다.

농촌 인재들을 혁신적으로 육성

중국제 1 자동차그룹은 ‘수혈’에서 ‘조혈’로의 전환을 중시하고 730 만원의 부족자금을 화룡시 농업농촌 및 향촌진흥 분야의 선전강습 사업에 투입하여 향촌 진흥 인재대교를 양성했다.

기층의 사업 수요에 대비해 ‘패키지식’(套餐式), ‘주문식’ 강습을 전개했다. 현재 향촌 기층간부, ‘3농’ 사업 선두자, 전문기술 인재에 대해 이미 빈곤되지 난관들과 성과를 공고히 확장하고 향촌 진흥과 효과적으로 련결시키는 관련 강습을 56 기 전개하여 연인원 1 만여명의 공간을 양성함으로써 현지 간부 대중의 업무 수준과 빈곤되지 대중의 취업 기능을 확실하게 향상시켰다.

학교와 기업 연합하여 인재 육성

중국제 1 자동차그룹은 화룡시의 발전 수요와 자체의 우세에 립각하여 교원 지원 경로를 정확하게 정했다.

중국제 1 자동차그룹은 실습훈련 자원이 부족하고 교원 기능이 부족한 등 화룡시직업기술학교의 문제점을 겨냥하여 ‘점 대 점’ 지원 계획을 가동, 고표준 실습훈련기지를 건설하도록 학교를 도왔다.

/ 유경봉기자



백산방대그룹, 당건설로 기업의 고품질 발전 이끌어

“당의 정신으로 종업원들의 심기를 결집시키고 당의 요구에 따라 기업을 발전시켰으며 당의 따뜻한 정을 대중들이 느끼도록 하여 기업의 발전장대를 이루어냈다.”

백산방대그룹 당위 서기이며 리사장인 녕봉련(宁凤莲)은 간결한 한구절로 기업이 끊임없이 도약하는 핵심 요지를 진술하게 털어놓았다.

비공유제 당건설을 기업 발전의 ‘조력자’로

‘7.1’ 당창건일이 다가오자 방대그룹당위는 40 여명 당원을 조직하여 입당신청서를 되새기고 전문 학습업을 개최하고 홍색혁명성자를 참관하고 항미원조 참전 로병사들을 위문하는 등 일련의 행사를 진행하여 당창건 104 주년에 진심어린 축복을 전했다. 설립 초기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고 명품 발전으로 융합하고 의연하게 전진하던 데로부터 발전 과정의 자산 재편성, 도약식 발전의 에너지 축적에 이르고 법에 따른 체제개혁과 혁신발전의 급속한 도약에 이르기까지 백산방대그룹은 중요한 3 개 발전 단계에 당건설이라는 이 ‘주선물’을 종래로 떠난 적이 없다.

방대그룹당위는 시종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확고부동하게 당의 로선·방침·정책을 학습·선전·관철집행하며 “중심을 둘러싸고 당건설을 틀어쥐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견지하며 기업의 목표비전·발전계획·중대 사항을 전부 당위가 토론·통과하고 결정·실시하고 있다. 당건설과 경영의 긴밀한 결합, 융합과 상호 촉진을 적극 추진하여 당건설의 우세를 혁신우세·발전우세로 전환시켜 정정으로 비공유제 당건설을 기업 발전의 ‘조력자’로 만들었다.

4 개 당지부를 경영봉사의 튼튼한 4 개 보루로 구축하고 85 명 당원들로 하여금 일터에서 85 개의 진붉은 기발로 되게 했다. 각 당지부와 전체 당원들은 ‘당기흥, 사업흥’(党旗红, 事业兴)을 정치적 인도로 시종 ‘한개



녕봉련은 백산방대그룹 당원과 청년자원봉사자들을 인솔하여 항일전쟁, 해방전쟁, 항미원조 참전 로병사 30 여명을 위문했다.

지부는 한개 보루, 한명 당원은 한개 기지’라는 확고한 신념을 따르고 ‘당원선봉일터’, ‘당원시범일터’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으며 ‘당원 1 대 1, 당원과 대중 1+2’ 활동을 착실하게 전개하여 브랜드, 준비성실, 문화육성, 사회보담 등 면에서 당조직의 전투보루 역할과 당원조직의 선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당조직의 응집력과 당원들의 전투력이 끊임없이 제고되었다.

진심봉사는 신뢰를 얻고 성실경영은 지지를 얻어

방대그룹당위는 도합 950 여개 단위의 당조직과 당건설 공동건설 협의를 체결하고 강대강 련합, 공동진보를 도모해왔다.

그룹당위는 당원과 종업원들의 업무 실재와 결합하여 세칙을 제정하고 계량화 표준을 통일하며 상벌, 격려제도를 건립하고 당건설과 기업관리, 봉사혁신 등을 련계하여 그룹에서 비교, 학습, 따라잡기, 초월의 짚은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그룹을 정기가 충만하고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도록

했다.

진심봉사는 신뢰를 얻었고 성실경영은 지지를 얻었는데 ‘모태제품감정봉사소’와 ‘오랑액제품감정봉사소’가 잇달아 백산방대그룹 소속 길림성성문화박물관에 자리잡았다. 중국 최고의 2 대 환술 기업이 감정봉사소를 한 민영기업에 정착시킨 것은 전국 주류 류통 분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백산방대그룹은 행동으로 ‘국가급 명주를 판매해온 35 년간 가짜술을 판매한 적 없고 성실경영으로 35 년간 고소를 받은 적 없다’는 경영실적을 과시하여 백산의 당건설 기지, 성실경영의 본보기, 발전의 본보기로 되었다.

책임·헌신으로 고향사랑과 로인공경 실현

“당이 저희를 키웠고 이 땅이 기업을 잉태했다.”

매년 음력설, 단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방대그룹은 깊은 정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위문품들을 들고 백산시사회복지원, 백산시아동복지원을 찾아

로인과 아이들에게 축복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사랑을 전한다. 10 여년째 당원과 청년자원봉사자들은 사회복지원을 찾아 로인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문예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백산방대그룹당위는 향촌진흥전략을 략착하는 과정에서 주동적으로 백산시 훈강구 룡도강진 서촌, 강연촌과 지원관계를 맺고 서촌에 20 개 가로등을 설치해주었고 강연촌에 8 개 쓰레기처리소를 건설하고 2 대 쓰레기차를 구매해주었다. 녕봉련은 백산시제 18 중학교, 훈강구 흥도애진 팔방희망소학교, 훈강구 칠도강진 8.1 희망학교 등 농촌학교의 컴퓨터, 프린터, 학생 밥상, 책걸상, LED 스크린, 랩장치 등 구매와 학생들 교복, 책가방, 학용품 등 구매에 60 여만원을 지원하여 원래 취약하던 농촌학교 운영 조건을 적극 개선해주었다.

지난 30 여년간 끊임없이 ‘애국공군·로병사 관심·민족단결’ 행사를 전개하여 주둔지 군경부대 장병과 변관초소의 전사, 전역 로병사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즐거움을 전달함으로써 국방에 헌신하고 조국을 보위하는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숭고한 경의를 표했다. 그중 류광명, 임서련, 황덕진 등 50 여명의 항일전쟁, 해방전쟁, 항미원조전쟁 참전 로병사들을 위문하여 군인들의 굳은 의지, 높은 사상경계, 고상한 정조, 훌륭한 품격으로 분발진취하여 난관을 돌파하도록 광범한 당원 간부들을 격려했다.

35 년 동안 중요한 명절만 되면 백산방대그룹은 사회각계의 기층에 깊이 들어가 기업의 배려를 전달했다. 최근 10 년간 빈곤되지 난관들과, 홍수방지, 가뭄대처, 전염병 예방통제에서 루계로 600 여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기부했을뿐더러 300 여명 실직 종업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방대그룹은 고향의 비옥한 땅을 경작하고 부지런한 노력으로 신속히 발전하여 백산송수를 더욱 널리 빛내고 있다.

/ 유경봉기자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 19 명 로당원 표창



대련시조선족기업가협회가 주최하고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가 주관한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 로당원 표창대회’가 1 일 대련시조선족문화예술관에서 개최되었다.

대련시조선족문화예술관 부관장 동효려, 대련시조선족기업가협회 당지부 서기 김명철,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 리사장 김덕주와 집행회장 지명화, 대련시 중산구 해군공장 가두당사업위원회 부서기 기효란 및 다년래 로인사업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19 명 모범당원과 여러 분회의 당원 대표 등 100 여명이 이번 활동에 참가했다.

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합창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어서 19 명 모범당원 명단을 공포하고 표창했다.

김명철은 축사에서 “수십년의 인생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로당원들이 초심을 잊지 않고 로인협회사업, 사회봉사, 후대양성 등에서 여

생을 빛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효란은 축사에서 광범한 로당원들이 자기 민족의 독특한 지혜와 사업작품으로 부동한 일터에서 커다란 성적을 거둔 데 대해 칭찬하고 나서 “전통을 이어가고 새로운 업적을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 리사장 김덕주와 집행회장 지명화도 발언에서 이번 활동에 아끼없는 협찬을 해준 대련시조선족기업가협회에 고마움을 표하고 나서 “광범한 로당원들이 만년에 전통을 발양하고 새로운 실천으로 여생을 빛낼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성무경, 김봉자, 리삼민 등 이날 수상한 로당원들은 “앞으로 당의 호소와 시대의 부름을 가슴깊이 아로새기고 장정의 길에서 계속 새 업적을 창조하겠다.”고 밝혔다.

/ 석금혜,

리삼민특약기자

